

아이의 잉태를 점지하는 신목의 은행나무



지정번호 서3-5

지정년도 1981

관리기관 서울

수령 370년

수고 29m

흉고둘레 6,9m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7

37° 31' 26.58" N

126° 58' 13.70" E

작은 공원처럼 잘 꾸며진 곳에 있는 보호수(서 3-5) 은행나무는 현재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에서 자라고 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37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9m, 가슴높이둘레는 690cm, 밑동둘레는 76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0m 정도로 퍼져 있다. 은행나무는 원줄기의 3.5m 높이에서 크게 2갈래로 갈라진 후 높이 9m 정도에서 다시 갈라지면서 여러 가지가 하늘 높이 향하고 있는 모양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다양한 편이다. 도시화 이전에 한 남자가 딸나무를 하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잘라 집에 돌아와 불을 지피고 나서 숨을 거두었다. 주민들은 그 이후 이 은행나무에 신령이 있다고 믿어 소홀이 다루지 않았다. 동네 주민들은 300년 이상 은행나무는 물론 주변에서 화재가 없었던 이유는 정월대보름날에 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동고사를 지냈기 때문으로 생각하며, 수호신을 위한 제를 올릴 때는 주민화합을 최우선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삼각지 부근에 사는 구모 여인이 정월초 정화수를 받들고 이 은행나무에다 지극정성의 치성을 드려,

3대에 걸쳐 손이 없다가 칠남매의 손을 얻은 사례가 있다. 이곳의 한 어르신은 나무할아버지의 명칭이 있는 은행나무에 백일 치성을 드리면 정신질환이 치료된 사례가 많아 재개발 이후에도 이 은행나무에 치성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고증하고 있다. 이 은행나무가 위기에 처하였다가 그대로 살아남은 일화가 있다. 이 나무가 자리한 일대가 주상복합아파트 파크타워 부지로 개발될 때에 이 은행나무는 반가운 존재일 리 없었다. 실제 재개발사업 초기에는 이 나무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동네의 상징적인 나무이고 보존하면 운치도 있는 만큼 그대로 두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먼지와 소음과 진동이 심한 공사현장에서 은행나무를 건강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개발조합 측은 나무를 관리하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은행나무 주위에 높은 철책 보호대를 설치하고 먼지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보호막까지 둘렀으며, 영양제와 비료를 공급하는 정성으로 건강을 지켰다. 은행나무는 이런 정성으로 살아남았다.

